

# 아시아 政治文化와 民主主義

## —그 受容過程의 性格—

李 洪 九

오늘날 우리가 論議하는 民主主義란 西洋政治傳統의 產物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民主主義를 論하기 위하여는 그 受容過程을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시아란 너무나 광활한 영역이며 수없이 다양한 文化的 傳統과 地域的 特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民主主義의 受容過程을 획일적으로 性格지우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예컨대 서구의 식민지로서 유럽 文化와 制度의 이식을 강요당하였던 東南亞 및 西南亞 諸國의 경우와 主體的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東北亞 三國의 경우는 구별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各論的 分析은 피하기로 하고 總論的 立場에서 民主主義 受容過程의 性格과 그 過程을 論議하는데 부수되는 問題意識을 선별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아시아에서의 民主主義의 受容過程을 論議하기 위하여는 그 과정이 전개되었던 특정한 시기,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지녔던 시대적 특성에 우선 留意할 必要가 있다.

西洋에서는 民主主義에 연관된 古典的 傳統이 그리스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으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막을 올린 近代史의 전개속에서는 이른바 시민혁명과 社會契約論 등에 밑받침된 國民國家의 成立이 進行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과 이를 수반

한 都市化와 大衆化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세기 西歐諸國이 對內的으로 경험한 民主主義의 과제는 産業化가 가져온 대중의 政治參與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는 것이었다. 산업화에 적응하는 민주화는 국가체제의 유지와 安定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되었다. 단지이 경우에 民主化란 대중동원을 뜻하기 때문에 동원의 手段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구제국이 植民帝國으로서 전성기를 즐기던 時代가 바로 19세기 말이었다. 따라서 對內的 산업화와 民主化가 대외적 제국주의적 팽창과 연계되던 時代의 특성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서구의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의 對象이 되었던 아시아 사회의 時代의 특성의 일면을 우리는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음 세가지로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봉건제도의 노쇠화와 비능률화의 심화로 정치권력은 정통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사회조직과 기강은 분열과 붕괴의 증후를 노출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및 사회적 위기에 대한 理解와 우려는 활발히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나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구상이나 社會의 近代化에 대한 기획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셋째, 이러한 위기속에서 밖으로부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서구제국주의가 지닌 기본성격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된 정도의 理解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병석에 누었다가 잠이 깨지않은 채로 일어나 상대방을 확실히 識別 못하는 선수에게 마구 강타를 퍼붓는 一方의 시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막한 와중에서 民主主義의 受容은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아시아의 民主主義는 처음부터 가시발처럼 험난한 무대에서 그 막이 올라갔다. 이러한 民主主義의 受容過程은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受容하였느냐는 비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될 수도 있다.

첫째, 「누가」受容하였는가? 이것은 受容의 主體에 관한 분석과 受容의 역할에 對한 분석을 토대로 대답될 문제이다. 흔히 말하는 기존권력 즉, 政府에 의한 受容이나, 또는 국민이나 반체제적 집단에 의한 受容이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래적 이념이나 제도의 도입은 엘리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에 보다 핵심적 문제는 어떤 엘리트가 受容의 主體가 되었으며 어떤 엘리트가 이에 반대하였는가를 가려내는 것이다. 受容主體의 문제는 대체로 수용결정과 직결되는데 비하여 役割의 문제는 일단 受容이 시작된 후에 그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어떻게」受容하였는가? 이 문제는 앞서 지적한 自意的 도입과 他意的 強요의 구별과 연결된다. 한편, 民主主義의 受容을 理念이나 제도의 수입으로 볼 때에 그것이 직수입이었느냐, 또는 간접수입이었느냐가 문제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어디로부터 輸入하였느냐는, 즉 輸入元의 차이 예컨대 美國으로부터냐, 英國으로부터냐, 프랑스로부터냐의 차이에 따라 이식된 民主主義의 性格도 달라지는 것이다.

셋째, 「왜」受容하는가? 이것은 目的과 동기에 관한 문제이다. 외래적 理念이나 制度를 受容하는 혼한 理由 가운데 하나는 기존제도나 체제에 對한 불만, 즉 봉건제도나 전제정치에 對한 반발이라는 부정적 태도이다. 그러나 보다 긍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近代化를 위한 개혁의 必要를 인식한 엘리트가 새 정치체제의 청사진 또는 모델을 구하는 과정에서 외래 理念의 受容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이란 특정한 시기에 近代化를 위한 모델로 쉽게 부각되었던 것은 自由民主主義와 마르크시즘 및 社會主義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력한 근대국가체제를 급속히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帝國主義와 내쇼널리즘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近代化의 청사진을 둘러싸고 부각된 여러 갈래의 서양이념은 서로간에 갈등과 조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니와, 近代化

를 위하여 이들을 個別的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受容하려는 아시아 제국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왜 民主主義를 受容하였느냐는 문제는 왜 民主主義를 近代化의 理念과 制度로 선택하였느냐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네째, 「무엇을」 受容하는가? 일단 民主主義를 受容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하여도 그것이 理念이나 이데올로기에 국한된 것인지 또는 制度나 過程에 치중한 것인지에 따라서 受容의 性格이 달라진다. 대체로 19세기 말의 이른바 民主主義 受容의 선구자들을 회고하여 볼 때에 그 당시 운영되고 있던 서양정치제도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한 理解가 있었던데 반하여 사상적 내용이나 이를 밀받침하고 있는 서양정치사에 대하여는 지극히 한정된 피상적 지식밖에 갖지 못하였던 것이 통례인 것 같다. 한편 民主主義의 本質的 규범과 절차적 규범의 관계도 적절히 理解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民主主義 受容은 인권이나 민권에 관한 상징적 規범에 대한 감격이나 이른바 선진국의 制度를 모방하여 근대국가로서의 구색을 갖추어야겠다는 편의주의 등 다양한 동기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民主主義의 受容은 民主主義의 어떤 측면이나 부분의 受容이었냐고 구체화시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民主主義의 受容을 포함한 外래이념과 制度의 受容과 이로 인한 사회전반의 변화는 몇가지 심각한 위기현상과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한 두가지만을 지적하여 보기로 한다.

외래사상이나 制度의 이식을 통한 社會와 국가의 변혁은 그 내용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여도 主體性의 위기를 수반하는 것은 불림없다. 어느 社會나 그 社會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결정시킨 일련의 전통, 관습, 意識을 갖고 있는데 급격하고 인위적인 외래사상이나 制度의 輸入은 이들을 위협하고 主體性의 보존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존재하여 受容의 內容, 방향, 범위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

와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경우와 그러한 역사의식의 부재속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 이식의 경우 사이에는 主體性的의 위기의 잠재적 및 장기적 심화라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즉 외래사상의 受容을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는 경우에는 民主主義의 役割이 중요하여지며, 따라서 民主主義와 민족주의의 관계도 신중히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主體性的의 위기는 정통성의 위기와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않된다. 대체로 主體性的의 危機는 社會를 단위로 하는데 비하여 정통성의 危機는 국가 또는 정치체제를 단위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통성의 危機에 대한 감지도가 훨씬 높은 것이 통례이며 이에 대한 해결 수단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정통성의 危機에 대한 극복방안이 그 자체로는 成功的이라 하여도 결과적으로 보다 심각한 主體性的의 危機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受容이 어떻게 主體性的의 危機와 연계되는가는 문제는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등과 연계시켜 다각도로 分析 및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民主主義를 서구로부터 受容된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결코 아시아 정치문화나 전통속에 民主主義的 요소가 내재하지 않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여러나라의 정치사를 돌이켜 보면 특유한 민주사상이나 합의조성의 制度 등 民主的 요소를 수없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정치사상, 특히 民主主義理念의 촛점이 되는 개인, 계급, 국민국가 등 개념은 바로 그와 똑같은 의미로 아시아 정치문화속에서 存在하였거나 理解되었던 것은 아니다. 신분이나 社會的 위치를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개인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토대로 한 自意的 계약이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정당화 한다는 國民國家思想은 19세기 말까지 동양정치문화에서는 생소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이러한 개인이나 國家에 관한 理念이나 규범이 특정한 계급

의 위치나 이익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산업화가 수반하는 계급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國家의 관계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관점은 역시 동양정치사상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를 균형있게 考察하기 위하여는 그의 서구로부터의 受容過程에 대한 면밀한 分析이 전제되는 것이다.

요컨대 아시아에서 民主主義의 수용은 時間的 次元에서의 近代化過程과 空間的 次元에서의 西洋勢力과 思想의 팽창이 포개어짐으로써 일어났던 歷史的 展開過程이었으므로 各個 社會가 지닌 主體的 歷史的 意識에 의지하여 理解 및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